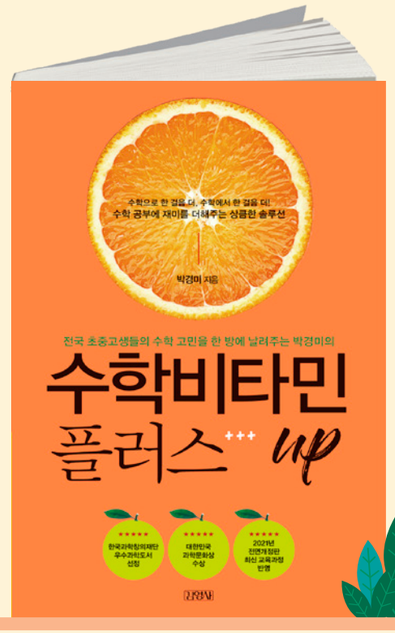
글 김진호 기자
(twok
@donga.com)



너의 굶주린 뇌를 채워줄 수학비타민!

수학비타민 플러스UP

박경미 지음 | 김영사 | 1만 7500원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 작용에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 비타민은 '넘쳐도 문제, 부족해도 문제'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자가 아니라면 나의 일상에서 마주칠 만한 궁금증을 해결할 만큼의 수학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을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체를 파헤치는 뉴스가 봇물 터지듯 많이 나왔어요. 이때 혹시 여러분은 '감기 바이러스는 왜 정이십면체 모양일까?'라는 질문을 떠올려본 적은 없었나요? 또 코로나19로 1년 늦게 진행된 2020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축구와 야구, 농구 경기에 흠뻑 빠졌다면, '손흥민, 박지성, 박찬호, 마이클 조던의 수학적인 공통점은?'이라는 질문도 던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질문으로 지식에 굶주려 있을 여러분의 뇌를 채워주기 위해 딱 알맞은 양의 수학비타민을 담은 '수학비타민 플러스UP'이 개정증보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책은 무려 444p에 달할 만큼 두껍지만 부담을 느끼진 마세요. 우선 복잡한 수학 공식이 없습니다. 사진과 일러스트가 함께하는 수학 이야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목차를 펼쳐 여러분이 가졌던 질문이 담겼는지 확인하고, 원하는 페이지만 쏙쏙 골라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모두 수학비타민 플러스UP을 들고 영양 보충을 하러 가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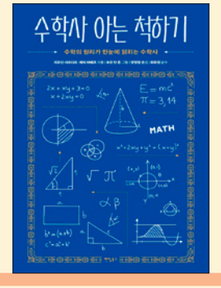
EVENT



수학비타민 플러스UP은
총 몇 페이지(p)일까요?

❶ 4p ❷ 44p ❸ 444p

★정답을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폴리매스 홈페이지(polymath.co.kr)에 있는 '선물이 팡팡' 해당 게시글에 비밀댓글로 달아주세요. 정답을 맞힌 친구 중 5명을 뽑아 '수학비타민 플러스UP'을 보내드립니다.







수학사 아는 척하기

지오딘 사르다르, 제리 라베츠 지음 | 보린 반 룬 그림 | 양영철 옮김 | 팬덤북스 | 1만 3500원

이 책은 수학 공식을 알려주는 수학 참고서가 아니다. 우리 일상에서 늘 함께해온 계산, 번호 쓰기, 숫자의 탄생과 지역별로 다른 숫자의 역사 등 수학에 대한 정치·사회·문화·역사적 의미를 정리한 책이다. 여러 사람과 대화하며 수학사 아는 척을 하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자.

수학을 배워서 어디에 써먹지?

루돌프 타슈너 지음 | 김지현 옮김 | 글담(아날로그) | 1만 4500원

컴퓨터, 계산기가 있는데도 왜 수학을 공부해야 할까? 이 물음에 오스트리아 빈공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루돌프 타슈너가 명쾌하게 대답한다. 그는 계산기나 컴퓨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산수를 제외하더라도, 수학에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지식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왜 우리가 수학을 배워야 하는지 궁금한 독자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수학 언어로 문화재를 읽다

오혜정 지음 | 지브레인 | 1만 8500원

경복궁에 담긴 오밀조밀한 기하학의 세계부터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완성한 치밀한 수학적 계산, 사계절을 담은 한옥의 구조까지! 우리 문화재 속에는 수학이 가득하다. 이 책을 읽고 자리에 앉아서만 하던 지식 위주의 수학 공부에서 벗어나 보자. 코로나19가 끝난 뒤에는 직접 문화재를 찾아가 수학을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깨우는 수학

장허 지음 | 김지혜 옮김 | 미디어숲 | 1만 8800원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문제만 많이 푸는 수학 공부 방식을 비판하며, 문제 풀이는 생각의 산물이 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당연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왜 2+5는 7일까', '삼각형 내각의 합은 왜 180°일까' 같은 의문을 품고 그 답을 생각하며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